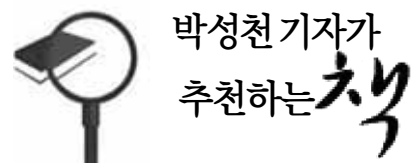


# “제주도는 살아있는 ‘여신의 섬’이며 첨성대는 신라 여신상”



산청군 중산리에 새로 봉안된 지리산 성모상.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여신을 찾아서

김신명숙 지음

“모든 사람은 여성 의 몸에서 탄생한다. 이 엄연한 사실에 여신의 뿌리가 있다. 여신은 모든 이분법적 구분을 뛰어넘어 전체를 감싸며, 또 생명과 존재들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드러낸다. 남성 또한 여신의 일부다. 아들도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 그녀의 젖을 먹고 자란다. 그들의 심리를 형성하는 원초적 토대도 어머니다. 여신은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다양한 성들도 낳고 품는 통합적 모성이자 여성성이다.”(본문 중에서)

제주 첨성대를 여신상이자 신전이라고 보는 이가 있다. 독특하고 이색적인 견해는 다분히 ‘여신학적’ 시각에서 비롯됐다. 역사책에서 배웠던 첨성대는 별을 보기 위해 쌓은 천문대였는데 말이다. 그러나 국내 최초로 ‘여신(女神)학 박사’는

여신문화 찾아 그리스·지리산·경주 등 10여년간 답사

마고할미·성모천왕·바리공주 등 한국여신의 이야기도 담아

문을 쓴 김신명숙은 첨성대를 여신상으로 규정한다.

첨성대 맨 위의 우물 정(井)자 돌이 2단으로 얹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간 몸체 두 곳에도 정자형 장대석이 걸쳐져 있는데, 이는 “온몸으로 자신이 우물임을 알리고 있다”는 증거다. 나아가 우물은 “샘이나 연못과 함께 세계적으로 여신의 성소였고, 임신·출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첨성대가 최초 여왕인 선덕여왕 때 지어졌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증거다.

여신연구가 김신명숙이 펴낸 ‘여신을 찾아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크레타까지 모든 생명을 품는 ‘여신’을 찾아 떠난 문화 답사기다.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등의 저자이자 기자, 방송진행자, ‘이프’ 편집인 등 그동안의 이력은 저자가 여신과 여신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음을 보여준다.

여신운동의 대모인 캐롤 그리스트는 추천사에서 “선사시대 여신의 발견은 학문적 추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며 “가부장제적 문화와 종교에서 자라난 여성들에게 신이 여자가었다는 사실의 발견은 심대하게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상찬했다.

그렇다면 과연 여신 또는 여신운동은 무엇인가. 저자는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 있던 여신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70년을 전후

한 시기라고 설명한다. 미국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등 남성 중심적인 종교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던 여성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도대를 마련했다.

책에는 크레타 섬과 제주도, 지리산, 경주 등을 다니며 10여 년간 답사했던 여신문화가 집약돼 있다.

먼저, 저자는 크레타 여신 순례에서 만난 여신운동의 대모 캐롤 그리스트와 함께 했던 일정을 소개한다. 미노아 바다의 여신 등을 새롭게 조명하며 고대의 여신신앙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

저자는 현재까지 여신신앙이 남아 있는 제주도의 신당을 방문하고 하늘의 여신인 성모천왕이 있는 천왕봉을 오른다. 서해의 대표어장인 칠산바다를 관장하는 개장할미를 만나러 손례를 떠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고할미, 노고할미, 바리공주 등 익히 아는 한국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풀어낸다. 저자는 “신성한 여군은 세수 열리터와 출산,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 사회의 우선적 가치들에 대한 모든 잘못된 인식을 돌아보게 만든다”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 가치관, 비전 그리고 용기와 힘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판미동·1만95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크레타의 아프로디테 여신상.

##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 마크 엘스베르크 지음, 백종유 옮김 ‘제로’

어느 날 드론에 공격당하는 미 대통령 테러 영상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이 테러를 자행한 집단을 스스로를 ‘제로’라고 밝혔다. 제로는 감시사회에 대항하는 시민 계급과 단체로 이들은 세상을 휘감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괴물들을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말한다.

출간 즉시 세계를 사로잡은 스티븐 소설의 베스트셀러이자 독일 최고 지식도서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수상한 소설 ‘제로’가 나왔다.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블랙아웃’의 작가 마크 엘스베르크가 펴낸 소설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권력을 파헤친다.

제로의 동영상 공개된 날 데일리의 기자 신시아의 딸 비올라 주변 친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들이 행동과 생활태도 등 모든 사생활에서 프로미 프로그램의 코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시아는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제로의 추적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알 인간이 된 지 오래다. 5년 이내로 이혼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의 통계를 통해 이미 예측하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신용카드 회사는 알고 있으니 은행 또한 알고 있다. 그들은 나의 데이터를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있으니 나의 다음 행동도 예측할 수 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프로미, 그들이 개인의 정보 수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세계를 음모에 빠뜨리려는 진짜 배후세력은 누구인가? 〈이야기가 있는 집·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히트 지음, 박중대 옮김 ‘세상을 알라’

전작 ‘나는 누구인가’로 전 세계 40개국 번역 출간해 철학사 역사상 전례 없는 280만 부 판매라는 기록을 세운 프레이히트가 신작 ‘세상을 알라’를 펴냈다. 여러 권의 대중 철학서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독일 공영 방송 ZDF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프로 ‘프레이히트’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 철학계 슈퍼스타다.

저자는 철학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으며 생동감 넘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화석화된 철학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그는 과감한 방식으로 책을 기술한다.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선별된 사상과 관념 사이를 당대의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논거와 일화들로 채운다.

프레이히트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로 이해하는 철학자들을 주목한다. 후대 인물에게는 한데 묶여 위대한 사상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서양 철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가들이다. 이오니아의 세 명의 자연 철학자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는 서양 철학의 출발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러한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견지했던 로고스적 시각은 이후 서양 사상의 출발이자 전부가 될 수 있다. 2500년의 역사를 지닌 긴 서양 철학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저자는 “철학하기는 삶과 공동생활에서의 의심스러운 전제와 주장들에 대해 우리의 머리를 깨운다. 그 목표는 더는 예전처럼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질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 그 목표란 우리의 생각과 삶의 틀을 넓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열린책들·2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엑셀 호퍼의 지음, 윤승희 옮김 ‘프로이트의 의자와 붓다의 방식’

“이 책의 저자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로 특히 웨버의 글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불교가 ‘직접 경험’을 강조하는 반면, 정신분석은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신분석이 점점 느낌과 경험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우리는 정신분석이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새삼 분명히 깨닫는다. 불교 역시 명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갖는 복잡성, 특히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점, 경계의 파괴 등 배울 점이 많다.”

‘프로이트의 의자와 붓다의 방식’은 엑셀 호퍼 등 미국 최고의 정신분석학자와 불교학자 8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정신분석과 불교심리학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정신분석과 불교심리학은 많은 태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을 관통하는 최고의 심리학적 논의와 지식을 담아 두 영역이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프로이트와 붓다로 대표되는 정신분석학과 불교심리학은 종교와 학문의 영역을 넘어 마음의 문제와 고통에 관해 실제적이고 공통된 해답을 준다. 자유연상, 무의식, 전이, 꿈의 해석 등 정신분석 개념과 덧없음, 무아, 명상 같은 불교 심리학 개념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 책은 두 영역의 예기치 못한 연대와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강력한 심리학 도구와 접점을 보여줄 것이다.

저자들은 불교와 정신분석에 대한 자신들의 폭넓은 경험, 생각, 느낌들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두 분야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세밀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끈다. 〈생각의길·1만9800원〉  
/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장수기업

## 기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옥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